

조선족 디아스포라 구술생애사 연구 현황과 방법*

박경용**

| 목 차 |

I. 머리말	연구 현황, 의의와 과제
II. 구술사와 코리안 디아스포라 구술생애사	IV. 조선족 디아스포라 구술생애사 연구방법
III. 조선족 디아스포라 구술생애사	V. 맺음말

| 논문요약 |

조선족 디아스포라 구술생애사는 조선족의 이주와 적응, 생활사를 기록하고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연구방법론이자 역사문화콘텐츠이며 분석을 위한 텍스트다. 중국 조선족은 이미 초기 이주세대가 대부분 자연 사멸함으로써 이주와 적응, 생활사의 많은 기억이 소멸되어 안타까운 실정이다. 한국과 중국에서 한국어로 간행된 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16권의 생애사와 5편의 논문이 산출된 정도여서 우선 양적으로 대단히 빈약하다. 하지만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조선족 디아스포라 구술생애사 연구의 단초를 열어주었다는 점에서는 그 가치와 의의가 적지 않다. 조선족 디아스포라 구술생애사 연구의 한 가지 대안으로 이른바 ‘포괄적 구술생애사’를 제시한다. 이는 구술생애사를 구전 및 구술증언 등과 더불어 구술사의 한 가지 단순한 분야로 간주하는 기존의 입장을 넘어서는 것을 의미한다. ‘포괄적 구술생애사’는 조선족 디아스포라의 구전 및 구술증언, 생애담, 구술생활사 등을 모두 포괄함으로

* 이 논문은 2014년 2월 5일 중국 연변대학교에서 공동으로 개최한 경북대학교 SSK 다문화와 디아스포라연구단 국제학술대회의 발표 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으로 2011년도 정부 재원(교육과학기술부 사회과학연구비지원사업)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1-330-B00118).

** 경북대학교 강사 겸 사회과학연구원 해외지역 및 이민센터 SSK다문화와 디아스포라연구단 공동연구원.

써 구술사 영역 내의 위상을 격상시키는 것이다. 조선족 디아스포라 구술생애사는 디아스포라 유형에 따라 연구 전략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즉 동북3성의 본거지 조선족과 이곳을 떠나 중국 내외로 재이주한 조선족 디아스포라 구술생애사의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 이는 이주 시기와 동기, 과정뿐만 아니라 연령층이 상이하고 이주지의 생활조건들이 달라 이주와 적응, 생활사의 양상이 같지 않기 때문이다. 본거지 조선족 구술생애사는 구전과 구술증언, 생애담을 비롯하여 이주와 적응, 생활사 중심으로 접근한다. 반면 재이주지 조선족 구술생애사는 생애주기에 따른 생애담과 이주과정 외에 재이주사회에 정착, 적응하는 과정의 생활양상 위주로 접근한다. 필자는 우선 동북3성 각처의 ‘조선족 100인 디아스포라 구술생애사 기록’을 제안한다. 연구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한국과 중국 내 관련 연구기관이나 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 주제어: 조선족, 제1의 디아스포라, 제2의 디아스포라, 구술생애사, 포괄적 구술생애사

I. 머리말

중국의 동북3성을 중심으로 집거해 온 조선족은 1세기 반이 넘도록 한국문화를 중국 내에 착근, 전승시켜 왔다. 동시에 중국과 한국을 잇는 교량역할을 수행해 왔다는 점에서 향후 한·중 외교관계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 기대된다. 19세기 중반부터 시작된 중국으로의 이주는 일제 강점기 급속도로 증가하여 이후 최대 200만 명에 이르렀다. 이를 ‘조선족 제1의 디아스포라(diaspora)’라고 한다면, 최근 전체 인구 중 약 절반 정도가 중국 내 대도시나 해외로 이주한 현상은 ‘조선족 제2의 디아스포라’에 해당한다. 이는 개혁개방정책 이후 이민이나 노동, 학업, 혼인, 관광 등을 위해 비교적 자유롭게 국내외로 이동이 가능한 중국의 정책적 변화를 반영한다.

이주와 정착과정에서 온갖 고난을 겪어온 초기 이주 세대는 연로하여 대부분 자연 사멸하였다. 이로 인해 조선족 디아스포라 현상과 관련되는

이주와 적응, 생활사 자료들도 전승 주체의 사멸과 함께 많은 부분이 유실되었다. 근래 들어 동북3성의 특정 생활공간을 중심으로 조선족 생활사에 대한 보고서가 일부 간행되기도 했지만(국립민속박물관 1996; 1997 1998; 강원도·강원발전연구원 2006; 2007; 2009; 한화석 2012), 한 세기 반의 조선족 이주사에서 디아스포라 생활사에 대한 기록이 희소함은 이 때문이다. 이는 생활사, 특히 이주민의 생활사가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지 않아 이주국가의 공식 기록과 역사에서 배제되는 일반적 경향과도 관련된다. 동시에 초기 이주 세대는 생명 부지조차 힘겨웠을 뿐만 아니라 문맹률도 높아 개인의 삶을 기록으로 남기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조선족에 대한 기존 연구들도 지역적으로는 연변 중심에다 거시 역사와 주요 정치적 사건 및 인물 중심으로 편중되어 보통 사람들의 기억과 경험, 인식에 대한 생생한 생활문화 기록은 미흡한 상황이다.

중국 조선족 중에서 80대 이상의 연로자라 할지라도, 이주를 경험한 생존자 대다수는 어린 시절 가족들과 함께 이주한 2세대(엄밀하게 1.5세대)에 해당한다. 이주의 주체로서 핵심 경험자는 아닐지라도, 위 세대의 생활상을 보고 들으면서 성장하고 또 전해들은 이야기들을 간직한다. 더 늦기 전에 이들의 경험과 기억이라도 환기시켜 추수해야 할 시점이다. 이제는 이들조차 차츰 자연 사멸 중이므로 사라져가는 디아스포라 기억과 경험 자료를 수집, 기록하는 작업이 시급하다.

이와 같은 입장에서 본고를 통해서는 어떻게 하면 소멸 중인 중국 조선족의 디아스포라 이주와 적응, 생활사에 대한 기록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하나의 대안으로 구술생애사(oral life history) 연구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구술생애사 접근은 당대 민중의 삶의 양상을 주체의 시각에서 여과 없이 현재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디아스포라 생활사 기록과 이해를 위한 연구방법으로서 장점을 지닌다(박경용 2013a, 107). 이를 위해 우선 코리안 디아스포라 연구에서 구술생애사 연구방법의 유효성과 한계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그런 다음 구술생애사 방법에 의한 조선족 디아스포라 연구 현황을 동북3성 본거지(기원지) 조선족과 재이주지 조선족으로 나누어 고찰한 후 그 의의와 과제에 대해 검토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조선족 디아스포라 구술생애사 연구를 보완하기 위

한 방안을 2가지 디아스포라 유형(본거지 디아스포라, 재이주지 디아스포라)에 따라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기존의 조선족 디아스포라 구술생애사가 이주와 적응, 생활사를 심층적으로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성찰적 입장에서 ‘포괄적 구술생애사’의 필요성과 방법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결론에서는 연구 내용을 요약, 정리한 후 조선족 디아스포라 구술생애사 연구가 조선족의 민족문화 보존과 전승을 위해 어떤 함의를 갖는지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필자는 한국과 중국에서 간행된 한국어 문헌을 중심으로 조선족 디아스포라 관련 구술 자료를 텍스트로 활용하였다. 중국의 자료는 “민족성원 개개인의 생생한 실제 경력과 체험 그대로를 구술 형태로 기록할 목적”(박충록 2008, 1-2)으로 2008년부터 편찬해온 민족출판사(북경)의 ‘조선족 구술역사시리즈’ 간행물을 참조하였다. 민족출판사는 “역사와 문화에서 아직 제대로 그리고 풍부하게 발굴, 정리되지 못한 채 ‘자연’ 상태로 민간에 널려 있거나 그대로 소실되어가고 있는 것들이 적지 않다.”(박충록 2008, 1)는 구술 기록의 시급성에서 조선족 디아스포라 구술 간행사업을 시작하였다. 한국 자료는 ‘코리아 디아스포라의 이주와 적응, 생활사에 대한 내러티브 연구’를 진행해 온 경북대학교 ‘SSK다문화와 디아스포라 연구단’의 최근 연구 성과물을 집중적으로 활용하였다.

II. 구술사와 코리아 디아스포라 구술생애사

구술사(oral history)는 개인의 기억이나 경험, 인식을 현재로 불러내어 기록으로 남긴 사료이자 역사적 사실을 의미한다. 따라서 구술사는 역사 연구를 위한 한 가지 방법론이자 역사적 기록 그것 자체이기도 하다. 구술사는 생존한 개개인의 기억과 경험에 의존하므로 주로 ‘가까운 과거’와 문자를 가지지 못한 사람들의 역사를 이해하기 위한 방법으로 채용되어 왔다. 구술자료는 기억의 환기에 의해 발화된 것이라는 점에서 객관성과

신뢰성, 보편성 등의 문제도 제기되지만, 구술성과 주관성, 개인성, 서술성 등의 고유성으로 인해 문헌자료를 통해서만 찾아보기 힘든 그 자체의 특수한 신뢰성도 갖는다(유철인 2003, 101-107; 윤택림 2006, 99-101).

이와 같은 특성을 갖는 구술사는 구비전승, 구술증언, 구술생애사를 포함한다. 구비전승(oral tradition)은 세대를 통해 오래전부터 구전된 민요나 민담, 설화, 속담, 수수께끼 등의 서사를 의미한다. 구술증언(oral testimony)은 과거의 특정 역사적 사건이나 집단 기억을 회고한 구술자료이다. 한편 구술생애사(oral life history)는 한 개인이 태어나서 현재까지 삶을 영위해 온 과정을 기억의 환기를 통해 현재화시킨 것으로 삶의 궤적이 씨줄과 날줄로 엮여 있다(윤택림 2004, 101-102; 윤택림·함한희 2006, 57-59).

구술생애사는 개인의 생애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생애 과정과 연계되면서 기억, 경험되는 구비전승과 구술증언까지 포함한다. 구술생애사는 개인의 출생과 청소년기, 성인기, 장년기, 노년기 등 생애주기별로 경험하는 의식주생활과 놀이, 의례생활, 세시풍속과 생활관습, 종교생활, 경제 및 직업생활, 가족 및 친족생활, 사회구성원 간의 갈등과 협력 등 일상생활의 문화사를 포함한다. 이처럼 생애과정에서 기억되는 일상생활의 문화사는 생애주기에 따른 단순 생애담과는 다르게 ‘구술생활사(the oral history of everyday lives)’로 일컬을 수 있다.

구술생애사는 생애주기별로 혹은 생애 속에서 경험하는 주요 사건별로 구조화되기도 한다. 생애주기별 구조는 생애주기에 따른 삶의 단순한 변화상에 한정된 생애담 수준의 협의의 구술생애사(일반 구술생애사)와 생활문화사까지 포괄적으로 보여주는 광의의 구술생애사(포괄적 구술생애사)로 구분 가능하다. 바람직한 구술생애사가 되기 위해서는 생애주기의 단순한 삶의 변화상에 더하여 개개인의 삶이 교직, 순환되는 공동체의 생활문화사까지 포괄할 필요가 있다.

코리안 디아스포라 구술생애사는 재외 한인의 이주와 적응, 생활사를 개인의 생애 경험과 인식을 바탕으로 구술을 통해 현재화시킨 것이다. 코리안 디아스포라 구술생애사는 한국을 떠나 이주 국가에 정착, 적응하면서 겪은 다문화, 초국적 생활의 경험과 인식이 집중적으로 제시된다는 점

에서 디아스포라 경험이 없는 일반 구술생애사와 차이가 난다. 이주민은 개인 혹은 집단이든 최적의 정착지를 찾기 전에는 대개 여러 곳을 이동해 다닌다. 이주지역마다 이주민 정책과 환경을 비롯하여 마주치는 사람과 문화가 달라 경험이 상이하다. 이른바 문화와 민족의 경계를 넘나들며 경험하는 다문화, 초국적 생활경험이다.

이주민은 주류사회로부터 침습자, 유목민, 주변인, 소수자, 기생자 등의 부정적 낙인으로 인해 공식적인 담론 형성으로부터 배제되거나 주목을 받지 못한다. 이주민 스스로도 생존하기에 바빠 개인 혹은 집단 차원 모두에서 스스로의 삶을 기록으로 남기기 어렵다.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이주와 적응, 생활사에 대한 기록이 빈약함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렇다면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이주와 적응, 생활사의 자료는 어디에 그리고 어떤 형태로 보존, 전승되어 왔는가? 아울러 이에 대한 연구는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이주를 비롯한 거시적 역사는 개괄적으로나마 기록되어 있을지라도, 집거지 개개의 공동체 수준이나 이주자 개인의 경험과 기억, 인식의 차원 등 미시적 관점에서는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아 왔다. 이런 점에서 코리안 디아스포라 연구과정에서 구술생애사 방법론의 유효성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로 정리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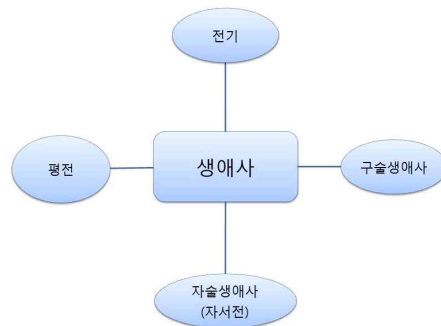
첫째, 코리안 디아스포라 구술생애사는 이주 원인과 과정, 고난, 궤적 등 이주의 전모와 정착과정을 사적 기록물이나 물증, 기억의 환기 등을 통해 사실적으로 보여준다. 둘째, 코리안 디아스포라 구술생애사는 이주자의 특수성으로 인해 공식 기록(역사)으로부터 배제 혹은 누락된 이주민의 생활의 역사를 현재화시켜 준다. 셋째, 코리안 디아스포라 구술생애사는 연로자의 자연 사멸과 함께 사라져가는 개인의 이주와 정착과정 및 생활사를 기록으로 남길 수 있도록 해준다. 넷째, 코리안 디아스포라 구술생애사는 일상생활의 역사에 대한 기록이므로 밑으로부터의 역사 연구를 위한 사료가 된다. 다섯째, 코리안 디아스포라 구술생애사는 주류사회 집단과 주요 인물 및 정치적 사건 위주로 구성된 공식 역사의 획일성과 불완전함을 보완해준다. 여섯째, 코리안 디아스포라 구술생애사는 공식 기록(역사)에서 누락된 숨겨진 이야기를 세상 밖으로 드러내준다. 일곱째, 코리안 디아스포라 구술생애사는 다중의 목소리를 재현 가능함으로써 디

아스포라 이주와 적응, 생활사의 다양성을 엿보게 해준다.

코리안 디아스포라 구술생애사 연구는 이상과 같은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다음과 같은 단점과 한계도 지닌다. 첫째, 생존자가 전무한 경우 증언해줄 사람이 없으므로 비교적 오래된 시기의 기억은 재현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한계로 지적된다. 둘째, 비록 훌륭한 구술자이더라도 너무 오래전의 일이거나 연령이 많아 기억이 쇠퇴한 경우에는 기억을 재현해내기에는 일정한 제약이 따른다. 아울러 경험의 제한성으로 인해 한 개인이 해당 정착지역의 이주와 적응, 생활사에 대한 모든 디아스포라 정보를 전해주기도 어렵다. 셋째, 개인의 삶에 대한 기억을 어떻게 환기시킬 것인지와 관련하여 연구자의 역량 및 ‘연구자-구술자’ 간의 관계 맺기 등에 따라 코리안 디아스포라 구술생애사의 질적 수준에는 많은 차이가 노정될 수 있다. 이는 구술자 선정과 친밀관계(rapport) 형성, 비구조화된 질문지 작성, 면담 기법 등 구술생애사 연구 과정에서 연구자가 심사숙고해야 할 문제이기도 하다. 넷째, 코리안 디아스포라 구술생애사는 개인의 기억과 경험, 인식에 치중하므로 구술자의 삶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거시 역사적 사실이나 정치경제적, 사회구조적 맥락과의 연관성에 대한 이해를 소홀히 할 수 있다. 다섯째, 코리안 디아스포라 구술생애사는 구술자가 자신의 경험과 기억을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구술 내용을 취사선택하거나 왜곡할 가능성도 함께 지닌다. 구술자가 기억을 재구성하는 과정은 자신의 경험과 인식을 해석하는 과정이기도 하므로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생각되거나 감추고 싶은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그대로의 구술이 어려울 수도 있다. 여섯째, 동시에 구술생애사는 구술의 주관성으로 인한 객관성과 보편성,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다는 한계를 갖는다. 일곱째, 사실이 축소 혹은 과장되거나 왜곡된 구술에 기초한 구술생애사를 텍스트로 사용하는 분석 작업의 경우 사실 왜곡과 잘못된 결론을 도출할 가능성이 있다. 여덟째, 재외 한인 중 후세대로 내려갈수록 모국어 능력이 떨어지므로 구술자와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는 구술생애사에 대한 심층적 면담과 기록이라는 연구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

Ⅲ. 조선족 디아스포라 구술생애사 연구 현황, 의의와 과제

한 개인의 삶의 전모를 기록한 생애사는 <그림 1>처럼 기록의 형식에 따라 전기, 평전, 자술생애사(혹은 자서전), 구술생애사 등으로 나뉜다. 전기 혹은 평전은 한 개인의 삶의 이야기를 전문 작가가 일목요연하게 기록한 생애사를 의미한다. 자술생애사는 당사자가 스스로 자신의 생애 이야기를 기억을 더듬어서 기록한 것을 말한다. 이에 비해 구술생애사는 연구자(혹은 작가)가 구술자의 직접적인 구술을 토대로 생애 전반에 대해 구술자연어 혹은 1인칭 서술방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그러므로 구술생애사는 연구자와 구술자가 면전에서 상호 질문과 대답을 주고받음으로써 연구를 진척시키므로 공동작업의 성격이 강하다.



<그림 1> 생애사 종류

코리안 디아스포라 연구에서 구술생애사 방법론은 조선족과 고려인을 비롯하여 일본이나 미국 교포 등 초기 이주지역 한인들의 이주와 적응, 생활사를 이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어 왔다. 구술생애사는 1인 혹은 여러 사람들의 생애를 한 권의 책이나 혹은 특정 주제 중심의 논문 형태로 산출되어 왔다. 구술생애사 단행본 중 전자는 ‘1인 구술생애사’로 그리고 후자는 ‘다인(多人) 구술생애사’로 부를 수 있다.

조선족 디아스포라 구술생애사 연구 현황에 대해서는 동북3성 본거지 조선족과 재이주지 조선족으로 나누어 살펴보려 한다. 이에 앞서 고려인을 비롯한 조선족 외의 재외 한인에 대한 디아스포라 구술생애사 연구 현황을 먼저 검토해 보고자 한다.

1. 조선족 외 고려인을 비롯한 디아스포라 구술생애사

구소련지역에 속하는 중앙아시아와 시베리아, 사할린 등지에 거주하는 고려인에 대해서는 역사학계를 중심으로 구술사 방법론의 활용 차원에서 구술생애사 단행본과 구술생애사에 기초한 논문들이 간행되었다. 역사학자 임영상(2003a, 2003b)은 2002년 미국 인디애나대학교의 역사 및 기억 연구소 객원연구원 신분으로 블루밍톤의 한인 커뮤니티를 비롯한 코리아 아메리칸과 구소련의 고려인을 중심으로 구술사 연구현황을 분석하였다. 그는 이를 바탕으로 시베리아 크리스노야르스크의 고려인 과학자(물리학) 김 표토르(임영상 2005)와 미국의 백한옥·장진옥 부부의 디아스포라 생활상(2006)을 구술생애사 방법으로 고찰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연구 성과들은 문화콘텐츠 집성의 맥락에서 단행본(임영상 2012)으로 간행되기도 했다. 여기에는 ‘페르가나의 고려인 신문기자 김 레오니드’(임영상 2012 131-163)와 ‘타슈켄트주 북쪽 등대 콜호스의 한국어 교사 김 게오르기’(임영상 2012, 164-191)의 구술생애사가 추가로 수록되어 있다. 이외에도 우크라이나 고려인협회 산 증인인 심 콘스탄친(김석원 2007)과 톱스크의 원로 고려인 이블라지미르(박지배 2008), 시베리아 과학자 김 파벨(배은경 2008), 고려인 학자 박 보리스 드미트리예비치(황영삼 2008), 우랄지역 원로 고려인(고가영 2008) 등 구소련지역 한인들의 구술생애사가 논문 형식으로 연구되었다.

최근에는 최초의 한인 해군장교 최 파벨 페트로비치(최선학) 가족을 중심으로 생존자의 기억을 통해 구소련 스탈린 치하의 한인 고난사(이병조 2011)가 논문으로 발표되었다. 이주 초기 고려인의 생활사가 인멸되어가는 상황에서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을 중심으로 하는 중앙아시아의 고려인 생애담(이복규 2012)과 남부러시아 로스토프와 볼고그라드 고려인

의 구술생활사(이채문 2013)는 학술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사할린 한인에 대해서는 2005년부터 관·학 합동으로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 피해 진상규명을 위해 생존자들을 중심으로 강제 이주와 노역, 피해 상황, 생활상 등의 기억과 경험을 생애사 연구의 맥락에서 구술 채록하였다(일제강점기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2005; 2006; 2007). 한국에 영주 귀국한 사할린 한인 공노원(박경하 2010)과 김옥자(박경용 2013)의 구술생애사도 각각 단행본과 논문으로 기록되었다. 경상북도에서 ‘경북의 혼을 찾아 떠나는 신(新)실�크로드’라는 이름으로 출신 재외 한인들의 삶을 기록으로 남기려는 시도는 주목할 만하다. 구술생애사 채록 작업은 2010년부터 연차적으로 이루어져 사할린 한인(경상북도·인문사회연구소 2011), 파독 광부와 간호사(경상북도·인문사회연구소 2012a; 2012b), 우즈베키스탄 고려인(경상북도·인문사회연구소 2013)에 대한 단행본이 차례로 간행되었다. 파독 간호사의 경우는 2명의 구술자를 대상으로 심층적인 생애 구술을 바탕으로 이들의 노동 경험에 대해서도 연구되었다(Kim 2004).

아메리카 코리안의 이주와 적응, 생활사에 대해서는 에네깅 농장에서 일했던 멕시코 한인(이종득 2003)과 멕시코에서 재이주한 쿠바 한인들에 대한 일련의 연구들(안금영 2003; 2004)도 일부 구술생애사를 부가적으로 활용해서 논문 형식으로 산출되었다. 한편 재일 한인에 대해서는 제주도 출신의 삶을 재일제주인 스스로의 시선으로 기록한 구술생애사 연구가 주목된다(재일제주인의 생활사를 기록하는 모임 2012). 첫 번째 단행본에서는 1917년생부터 1937년생에 해당하는 2세대 재일제주인 5명의 구술생애사가 소개되었는데, 이 모임에서는 향후 지속적으로 제주인의 구술생애사를 기록해 나갈 계획이다.

2. 동북3성 본거지 조선족 디아스포라 구술생애사

이상의 코리안 디아스포라 구술생애사 연구가 대부분 2005년 이후 이루어졌듯이, 중국 조선족에 대해서도 2010년을 전후한 아주 최근에만 비로소 본격 시작되었다. 중국의 조선족 디아스포라 구술생애사 연구는 단

행본과 논문을 망라하여 동북3성 본거지 조선족과 이로부터 중국 내외로 재이주한 조선족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조선족 구술생애사 연구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인물은 중국 조선족 제1세대 역사학자로 꼽히는 박창욱(남, 1928년생)으로서 해외한국학 연구 동향을 소개하기 위한 특별기고 형식으로 그의 생애 구술 내용이 학술지에 소개되었다(유병호 2002). 박창욱의 조부모는 1891년 가족들을 데리고 만주로 이주했는데, 구술자는 1928년 길림성 연길현에서 출생한 조선족 2세대에 해당한다. 그는 연변대학 역사학부 교수로 1세대 학자에 속한다. 그의 구술생애사는 제자이면서 현재 연변대학 민족연구소에 재직 중인 유병호 교수와의 면담에 의해 성장과정과 광복 전후 및 6·25전쟁 시기 정세와 참전경험, 한국사 연구 입문 및 조선족 역사와 민중운동사 연구과정 등을 중심으로 소개되었다. 평생 역사학자로 살아온 생애 특성과 관련하여 역사연구 분야의 주제 중심으로 27쪽의 소략한 형태로 정리되었다. 그의 구술생애사는 전환기 조선족의 이념적 지향과 실천을 이해하는 데 귀중한 구술 자료로 평가된다.

중국 북경의 민족출판사에 의해 2008년부터 시작된 ‘조선족구술역사시리즈’ 간행사업은 조선족의 디아스포라 경험과 기억을 장기 지속적으로 기록해오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대표적인 생애사 간행물로는 『나의 인생길』(박충록 2008), 『나의 한평생』(김응삼 2010), 『나의 사랑 나의 추억』(리정자 2011), 『머나먼 려정』(장진걸·손정려 2012), 『두만강변에서린 애환 : 한 박씨 일가의 백년 이민사』(박남권 2013)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은 학술 영역이나 교육, 위생, 행정, 정치 등의 전문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 인물 위주로 구술을 가미한 자술생애사 형식을 띤다. 증조부모 때에 동북지방으로 이주해온 이주 3세대 박충록은 북경대 교수 출신으로서 길림성 소영자촌의 어린 시절 성장과정과 학업, 연애, 결혼, 가족관계, 교수 및 연구생활, 관광 등 일생생활 경험을 비롯하여 일제강점과 문화대혁명 등 역사적 사건들에 대해 자세하게 회고하였다. 특히 장진걸·손정려는 1904년 평양 출신으로 1930년 중국 상해로 가서 독립운동에 참여한 리화림(여, 1999년 작고)의 생애를 1인칭의 구술 증언 형식으로 엮었다. 그들은 2~3년 동안 면담한 구술자료를 바탕으로 구술자의 성장과정과 3·1만

세운동, 압록강 도강 이주, 중국에서의 독립운동 등을 중심으로 정리하여 1995년 먼저 중국어로 간행하였다.

일부 광역자치단체에서는 도내 출신의 조선족 뿌리와 정체성 찾기 일환으로 동북3성 집거지를 현지 조사하여 그들의 삶과 생활문화를 구술생애사 방식으로 기록하였다. 먼저 강원도에서는 2004~2007년까지 길림성(연변조선족자치주), 흑룡강성, 요녕성 등지의 조선족 강원인들을 대상으로 이주과정과 정착·적응, 생활문화 양상들을 기억의 환기 방식으로 조사하였다(강원도·강원발전연구원 2006; 2007; 2009). 경상북도에서도 도내 출신 재외 한인에 대한 연구를 ‘경북의 혼을 찾아 떠나는 신(新)실크로드’라는 이름으로 정책적 차원에서 연차적으로 지원해 왔는데, 그 첫 사업이 2010년에 실시된 중국 조선족 연구였다. 『중국, 경상도 마을을 가다』(경상북도·인문사회연구소 2011)라는 간행물의 제목에서처럼, 이 연구는 흑룡강성 홍신촌(紅新村)과 길림성 아라디마을(阿拉底村), 금성촌(金星村) 등 경상도 출신 조선족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3개의 마을을 대상으로 했다. 이 책은 전문 구술생애사라기보다는 조선족 다수에 대한 구술생애사를 채록한 후 이를 분석, 해체하여 이주와 정착과정, 생활모습을 들여다보는 방식으로 엮어졌다. 구술자들은 대부분 조선족 1.5~2세대로서 지금의 마을에 정착하기 이전의 초기 디아스포라 상황에 대한 생생한 정보를 제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50년대 황무지를 수전(水田)의 옥답으로 개척함으로써 모범적인 조선족마을로 일궈낸 이야기는 한민족의 끈기와 지혜를 엿보게 해준다. 책의 마지막 장에는 80여 쪽(313-399)에 걸쳐 조선족 8명의 구술생애사를 ‘이주 역사와 증언’이라는 소제목으로 묶어 첨부하였다. 이는 20~30명의 다인(多人) 구술생애사를 바탕으로 조선족의 이주와 적응, 생활사를 분석한 연구 사례로 평가된다.

경북대학교 ‘SSK다문화와 디아스포라 연구단’은 정부(한국연구재단)의 연구비 지원으로 중국 조선족에 대한 상당수 구술생애사를 채록하여 단행본과 논문으로 간행했다. 아래에 소개되는 내용들은 2012년(연변, 흑룡강성 오상시)과 2013년(산둥성 청도시)에 이루어진 현지조사의 연구 결과이다. 우선 흑룡강성 오상시에 거주하는 조선족 1.5세대 이승락(남, 1928년생)의 구술생애사를 바탕으로 해방 전후 조선족의 이주와 정착과정을

분석한 논문(문정환 2012)을 들 수 있다. 수리국 측량단의 측량기사로 살아온 구술자 이승락은 1940년 모친이 4남매를 데리고 흑룡강성 오상시로 이주한 후 이곳에서 성장했다. 이 논문에서는 중국으로의 이주과정과 6·25전쟁 참전 경험, 수전 개발을 위한 측량기사의 역할 등이 생애 구술 자료를 바탕으로 비교적 자세하게 소개되고 있다.

동 연구단에서는 집거지 조선족 연로자들의 생애 구술 자료를 바탕으로 2권의 다인 구술생애사를 간행했다. 『연변 조선족 구술생활사』(이채문·조현미·여필순·이현철·문정환 2013a)는 연변 조양천진 광석촌(光石村)과 팔도촌(八道村)에 거주하는 조선족 남녀 18인의 구술생애사에 대한 기록이다. 이들은 1930~1947년생으로 어려서 가족들과 함께 중국으로 이주한 1.5세대이거나 혹은 중국에서 태어난 2세대에 해당한다. 이들은 교수, 대장장이, 농민, 저술가, 종묘 사업가 등 다양한 직업군에 속한다. 이 책에는 312쪽에 걸쳐 이주와 정착과정을 비롯하여 생계활동, 일제강점기 생활, 국·공 내전, 문화대혁명, 토지제도 및 집체화제도, 수전 개발, 가족관계, 자녀들의 중국 대도시와 해외 이주 등 개인 생애 전반에 대한 구술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흑룡강성 오상시 조선족 노인들의 생활사』(이채문·조현미·여필순·이현철·문정환 2013b)는 10여 명의 오상시(五常市) 노인(1921~1947년생)들의 구술생애사로 94세의 최고령자로부터 73세까지 노인들의 디아스포라 기억과 경험을 담고 있다. 특히 94세의 김성실 할머니는 평남 대동군 대동리 출신으로 9세 때 배를 타고 아버지를 따라 흑룡강성 오상시로 이주하여 정착했다. 그녀는 23세에 결혼하여 44세에 남편과 사별한 후 85세까지 농사와 산나물(고사리) 채취로 생계를 이끌어 나옴에 한곳에 붙박이로 생활하였다. 오상시 노인협회 회원들의 회고담을 통해서 민락향(民樂鄉) 조성 배경과 문화대혁명, 한족과의 관계, 한국에 대한 인식 등의 내용들이 생생하게 정리되어 있다.

이상의 구술생애사 2권이 다인 구술생애사에 해당한다면, 다음의 조선족 지식인 심혜숙과 이원백의 사례는 평전 형식으로 엮어낸 1인 생애사이다. 이들은 모두 연변대 교수 출신으로서 같은 대학의 중견 현직 교수에 의해 생애 전반에 대한 구술 채록 후 전기 형식으로 서술되었다. 심혜숙의 구술생애사는 제일한인 2세 여성 작가(이양지, 1955년생)와의 비교

연구를 통해 디아스포라 여성의 삶과 정체성을 주제로 하는 논문(조현미 2013)으로도 소개되었다. 동시에 『나의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사연들』(심혜숙 2013)이라는 제목의 자술생애사 형식으로도 간행되었다.

『조선족 엘리트 여성 심혜숙의 생애』(조현미·여필순 2012)라는 책에 등장하는 구술자 심혜숙(여)은 1935년 길림성 화룡현에서 출생한 조선족 2세대에 속한다. 그녀의 할아버지가 자식들을 데리고 길림성 화룡현 서성구 구장에 정착하였다. 이 책을 통해서는 이주 및 정착과정에서 겪은 이주민으로서의 삶과 애환, 면학, 연구와 가족, 사회주의 교육운동, 남편과 자녀들의 이야기, 형제자매 이야기, 연구 활동, 만년의 여가생활 등 생애 전 과정이 비교적 소상하게 기록되었다. 한편 『물리학자 이원백 교수를 통해서 본 조선족 지식층의 삶』(여필순 2013)을 통해서도 조선족 지식인 이원백(李沅柏, 남)의 삶이 구술자료에 기초하여 1인칭 서술형식으로 정리되어 있다. 이원백은 1928년생으로 열 살 때이던 1939년 부친이 길림성 용정으로 이주하면서 중국에 정착한 1.5세대에 속한다. 그는 연변대 물리학과 1기 졸업생으로 유년시절과 만주 이주과정, 생계 노동, 공부과정(연변대, 북경대), 문화대혁명, 물리학 발전 노력, 한국 방문, 만년의 여행담, 정년퇴임 등을 중심으로 생애 전 과정에 대해 구술하고 있다.

3. 재이주지 조선족 디아스포라 구술생애사

‘제2의 디아스포라’로 일컬어지는 조선족의 재이주는 수많은 조선족들이 동북3성 본거지로부터 중국 내 대도시나 한국을 비롯한 해외 여러 나라로 돈벌이나 학업, 혼인 등으로 이주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조선족의 재이주는 주로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개혁개방정책 이후 시작되어 1992년 한·중 수교를 기점으로 폭발적으로 증대되어 전체 조선족의 절반 가량이나 된다. 이는 제1의 디아스포라와 비교하여 이주의 목적이나 동기, 과정 및 이주지 정착, 생활양상 등이 자못 상이할 뿐만 아니라 훨씬 더 역동적이다.

제2의 디아스포라 조선족들도 동북3성 본거지에 정착한 선조들과 마찬가지로 이주와 정착 및 생활과정은 기록치가 않다. 전체 조선족의 절반이

재이주의 물결에 흘러다니지만, 소수자, 이방인, 침습자 등의 낙인으로 인해 주류사회로부터 주변화되어 왔다. 이들의 이주와 적응, 생활모습들도 제대로 주목받지 못해 사회적 담론으로부터 배제되거나 공식 기록으로 남겨지기 어렵다. 이런 점에서 구술생애사 방법론은 조선족의 새로운 이주지로의 이동과 적응, 생활양상에 대한 이해의 수단으로서도 여전히 유효하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재이주지 조선족 디아스포라 구술생애사 연구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파란과 곡절 그리고 희망』(이춘복 2010)이라는 구술생애사를 들 수 있다. 이는 ‘중국조선족 출신 결혼이민자의 일대기’라는 부제가 보여주듯, 한국 남성과 결혼을 위해 이주한 조선족 김상옥(金祥玉, 여)의 파란만장한 생애 이야기다. 그녀는 1962년 흑룡강성 계동현 출신으로 할아버지 때에 연변으로 이주한 조선족 3세대에 속한다. 재혼녀인 그녀는 2010년 한국 남성과 고향인 계동현 탄광촌에서 결혼 후 이듬해에 한국(충남)으로 이주하였다. 이 책에는 그녀의 유년기, 문화대혁명기 소학교 시절, 문혁전 후 혼란기 중고교시절, 사회진출과 첫 번째 결혼, 결혼 실패 후의 고난의 세월, 동생들의 결혼 이야기, 현재 남편과의 만남, 한국생활 적응기, 결혼 이민자의 생활적응과 고충, 향후 바람 등의 항목으로 구술생애사가 211쪽에 걸쳐 비교적 자세하고 체계적으로 기술되었다. 이 연구는 중앙대학교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의 중점연구소 정부 지원비에 의해 연구자의 고향 마을에 혼입해 거주하는 구술자를 섭외하여 1주일간 하루 3시간씩 체계적으로 면담한 결과이다. 구술생애사 서술방식은 ‘질문-응답’ 형식이며, 1인 구술생애사에 해당한다.

예동근 등(2011)에 의해 집필된 『조선족 3세들의 서울 이야기』는 12명의 30~40대 조선족 3세들이 한국의 수도 서울에서 직장생활하며 적응해 나가는 자술생애사이다. 이들은 모두 중국 동북3성(길림성 6명, 흑룡강성 6명)에서 출생하여 중국 대도시나 일본, 한국 등지로 유학한 경험이 있다. 이들은 1998년부터 2011년까지 3~15년 동안의 한국생활을 경험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교수, 연구원, 변호사, 대기업 간부 등 재이주지에서 성공한 사례로 보수나 사회적 지위 등에서 남부럽지 않은 생활을 영위한다. 선대 조상들의 중국 이주와 가족관계, 어린 시절과 학업과정, 한국생활의

적응과 애로, 정착과정 등을 중심으로 각자의 생애 이야기를 기억의 회상 방식으로 기술하였다. 1인 평균 25쪽 분량이며, 12명의 생애 이야기를 자술 형식으로 한 권의 책에다 엮었으므로 ‘다인 자술생애사’에 속한다. 한편 재외한인학회에서는 서울과 경기 일원에 거주하는 1940~1980년대 출생 남녀 22명의 조선족을 대상으로 이주와 적응 및 생활과정을 구술 채록하여 1인칭 서술형식으로 엮은 ‘다인 구술생애사’를 간행하였다(박우·김용선 외 편 2012).

다음의 구술생애사 단행본과 논문들은 모두 조선족의 중국 내 재이주지 중의 한 곳인 칭다오(靑島)의 조선족에 대한 것이다. 칭다오는 산둥성 연해도시로서 한국 기업이 대거 진출함으로써 약 20여만 명의 수많은 조선족이 이주해 거주한다. 『칭다오 조선족 9명 이야기-신흥정착지 칭다오 조선족, 그들의 삶 그리고 내러티브(Narrative)』(이현철·박경용·여필순·이채문 2013)는 1993년부터 신흥정착지 칭다오에 이주해서 살아가는 30~60대 남녀 조선족 9명의 구술생애사이다. 이들은 대부분 조부모 때부터 중국 동북지방으로 이주해온 조선족 3세대로서 재이주지 칭다오에서 교수, 의사 등의 전문직과 무용가, 교회 장로, 기업가, 식당 자영업자, 단순 노동자 등 다양한 직업에 종사하고 있다. 이 책에는 출생 및 성장과정, 학업, 칭다오 이주 및 정착과정, 가족관계, 한국인과 한족 등과의 사회관계, 생활상의 애로와 한계 등을 중심으로 구술생애사가 정리되어 있다. 이 책은 ‘다인 구술생애사’에 속하며, ‘질문-응답’식의 서술방식을 따른다.

박경용·여필순·이채문·이현철(2013)에 의해 공동 간행된 『중국 칭다오(靑島) 조선족 박정옥의 구술생애사』는 조선족 2세대 여성 박정옥(1957년생)의 구술생애사이다. 8·15광복을 전후한 시기에 그녀의 조부모가 중국 동북3성으로 이주하였으며, 그녀는 흑룡강성 오상시에서 태어나 성장했다. 그녀는 결혼 후 30대부터 구소련 보따리무역과 6년간의 한국노동 경험에 있으며, 2002년 칭다오 이주 후 계속 거주하고 있다. 이 책을 통해서 조부모의 이주사를 비롯하여 출생 및 성장과정, 결혼생활과 가족 이야기, 한국 노동생활, 코리안 드림과 가족 해체, 칭다오 이주와 정착, 정착기반으로서의 민박사업 경영, 칭다오의 사회관계 등을 중심으로 235쪽에 걸쳐 구술생애사가 비교적 자세하게 기술되었다. 이는 1인 구술생애사

에 속하며, 본문 내용이 모두 구술자연어로 기술된 특성을 갖는다.

상기 박정옥의 구술생애사는 생애 내러티브(life narrative)를 중심으로 “구술자의 삶과 가족사를 통한 조선족의 디아스포라 애환”(박경용 2013b)과 “조선족 디아스포라 경험과 신흥이주지 정착 전략”(박경용 2013c)이라는 제목의 논문으로도 간행되었다. 이들 논문들은 구술생애사 텍스트를 바탕으로 신흥정착지로 이주해서 정착, 적응해 나가는 과정에서 겪은 경험과 인식, 생활모습을 분석한 것이다.

4. 조선족 디아스포라 구술생애사 연구 의의 및 과제

이상으로 조선족 디아스포라 구술생애사 연구 내용을 개괄적으로 살펴 보았는데, 그 개요는 <표 1>과 같다. 단행본은 총 16건(본거지 조선족 11건, 재이주지 조선족 5건)이고, 논문은 5건(본거지 조선족 3건, 재이주지 2건)으로 나타난다. 구술자들은 거주지가 본거지와 재이주지 중 어딘가에 따라 연령과 이주세대에 큰 차이가 난다. 본거지 구술자들은 대부분 70, 80대로서 1.5~2세대에 속한 반면, 재이주지 구술자들은 50대 이하로 2, 3세대에 해당한다. 이상의 구술 대상자들은 본거지의 경우 주로 연변지역과 길림성, 흑룡강성 중심으로 분포하며, 요녕성 조선족에 대한 연구는 단 1건으로 희소하다.

구술생애사 연구 내용이 21건으로 아주 제한되지만, 이들은 조선족의 이주와 적응, 생활사에 대한 다양하고도 심도 있는 이해를 제공한다. 구술생애사는 구술자의 기억과 경험, 인식을 스스로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함으로써 이주와 적응, 생활사에 대한 생생하고도 여과 없는 정보를 전해 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식적이고 거시적 수준의 역사나 정치적이고 주요 사건과 인물 중심적인 역사 서술과는 다른 ‘살아 움직이는 일상생활의 역사’를 보여준다. 예컨대, 길림성 아라디촌이나 금성촌, 흑룡강성 흥신촌 조선족의 구술 사례처럼, 조선족들은 주체적 입장에서 황무지를 수전 옥토로 개척하고 중국 제일의 조선족마을을 건설함으로써 침습, 기생, 낙후, 변방, 가난, 수동 등 이주민에 덧씌워진 부정적인 일반적 이미지와는 상이한 긍정적 인상을 보여주었다(경상북도·인문사회연구소 2010). 한국 서

울에서 남부럽지 않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조선족 3세들의 생생한 생애 이야기도 이른바 ‘3D 업종’에 종사하는 단순 노무자라는 기존의 제한 조선족 이주민에 대한 일반적 이미지를 재고하도록 해준다(예동근 외 2011).

<표 1> 조선족 디아스포라 구술생애사 연구개요

구분	저술 형태	저술 연번	간행 년도	구술자/ 자술자	성 별	연령 혹은 출생년도	이주 세대	거주지
본거지	단행본	1	2008	박충록	남	1928년	3세	북경시
		2	2010	김응삼	남	1929년	1.5세	반석시
		3	2011	김학관 리정자	남 여	1929년 1933년	1.5세 2세	도문시
		4	2011	25-30명	남녀	60-80대	1.5세	홍신촌, 금성촌 아라디마을
		5	2012	리화립	여	1904년	1세	대련시
		6	2013	박남권	남	1942년	3세	교하시
		7	2013	18명	남녀	1930-47년	1.5-2세	광석촌, 팔도촌
		8	2013	10명	남녀	1921-47년	1.5-2세	오상시
		9	2013	심혜숙	여	1935년	2세	연길시
		10	2013	심혜숙	여	1935년	2세	연길시
		11	2013	이원백	남	1928년	1.5세	연길시
	논문	1	2002	박창욱	남	1928년	2세	연길시
		2	2013	이승락	남	1928년	1.5세	오상시
		3	2013	심혜숙	여	1935년	2세	연길시
제이주지	단행본	1	2010	김상옥	여	1962년	3세	한국(충남)
		2	2011	12명	남녀	30-40대	3세	한국(서울)
		3	2012	22명	남녀	30-70대	2-3세	한국(서울, 경기)
		4	2013	9명	남녀	30-60대	2-3세	청도시
		5	2013	박정옥	여	1957년	2세	청도시
	논문	1	2013	박정옥	여	1957년	2세	청도시
2		2013	박정옥	여	1957년	2세	청도시	

조선족의 디아스포라 구술생애사 연구는 이제 시작 단계로서 만사지탄이다. 왜냐하면 초기 이주세대가 대부분 자연 사멸하여 이들의 소중한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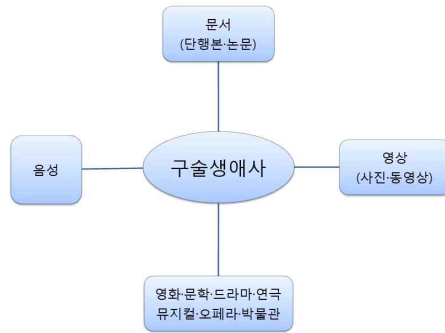
역들을 수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조선족이 한인의 이주 역사에서 차지하는 적지 않은 비중과 연구의 시급성에 비춰볼 때 기록물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그리고 내용도 대부분이 단순 생애담과 특별한 생애 경험 중심이어서 개인의 삶이 공동체생활과 교직, 순환되는 생활문화를 비롯한 생애사의 상당 부분이 누락되어 있어 아쉬움이 적지 않다. 이는 연구 테크닉 부족과 친밀관계 형성의 미흡, 언어소통 문제, 연구 인력과 시간 및 예산 부족 등 여러 가지 원인 때문이다. 중국의 자료들은 사회적 명망가 위주로 개인 생애 경험 중 주요 역사적 사건에 대한 구술증언에 비중을 두면서 자술생애사 형식이 주를 이룬다.

이제부터라도 선조들로부터 들어 간직하고 있는 이야기들이나 이들의 삶을 어린 눈으로나마 보아서 가슴 속에 각인하고 있는 기억의 잔영이라도 서둘러 추수해야 할 것이다. 혹은 그들이 남긴 빛바랜 사진 한 장, 먼지 묻은 물건 한 조각이라도 찾아내어 본래의 얼굴로 가꾸어 보존해 나가야 한다. 명망가나 주요 역사적, 정치적 사건에 대한 구술증언에 더하여 보통사람들로 하여금 스스로의 시각으로 조선족의 일상생활의 역사를 말하게 하고 이를 기록하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 완성도나 형식을 탓하기에 앞서 남녀, 직업, 지역을 골고루 포함하여 가능한 많은 사람들의 생애사를 채록하여 집성해 나가야 한다. 조선족 디아스포라 구술생애사의 중요성이 학계에 두루 인식되고 있으므로 향후 활발한 연구가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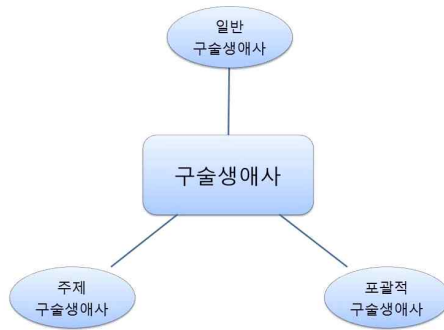
IV. 조선족 디아스포라 구술생애사 연구방법

1. 구술생애사 분류와 포괄적 구술생애사

구술생애사는 한 가지 종류만이 있을 수는 없으며, 다양한 형태의 구술생애사 생산이 필요하다. 구술생애사를 담을 수 있는 매체도 문서와 음성, 동영상 등 다양하다. 때로는 다큐멘터리나 영화, 소설, 드라마, 연극, 뮤지컬, 음악, 사진, 그림 등으로도 표현 가능하다(<그림 2> 참조).



<그림 2> 구술생애사 표현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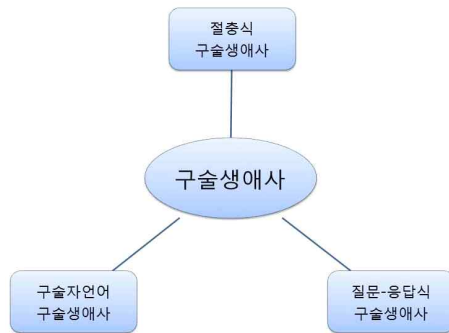


<그림 3> 내용에 따른 구술생애사

문서 형태로 한정해 본다면, 구술자의 수에 따라서는 1인 구술생애사와 다인 구술생애사로 나뉜다. 구술생애사 내용에 따라서는 일반 구술생애사와 주제 구술생애사, 포괄적 구술생애사로 구분된다(<그림 3> 참조). ‘일반 구술생애사(general oral life history)’는 생애 전반을 두루 다루되, 구술자 개인의 성장주기에 따른 생애담 수준의 것을 의미한다. 생애를 관통하면서 구술자의 생애에서 부각되는 특정 주제나 내용을 집중적으로 다룰 수도 있다. ‘주제 구술생애사(thematic oral life history)’는 장인이나 예술가, 군인, 과학자 등 특수한 분야의 전문직 종사자나 경험자를 대상으로 특정 주제 중심으로 생애사를 기록한 것이다. 한편 ‘포괄적 구술생애사(inclusive oral life history)’는 단순 생애담 외에 개인 생애와 관련한

구전과 구술증언, 생활사 등을 두루 포함한다.

편집방식에 따라서는 ‘구술자언어 구술생애사’와 ‘질문-응답식 구술생애사’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모든 내용을 구술자 언어로만 수록하는 반면, 후자는 연구자의 질문과 구술자의 응답을 문답 형식으로 수록한다. 한편 구술 내용을 연구자가 약간씩 정리, 해석하면서 양자의 방식을 절충하여 편집해나가는 ‘절충식 구술생애사’도 있다(<그림 4 참조>). 앞서 살펴보았듯이, 기술의 형식에 따라서는 전기, 평전, 자술생애사(자서전), 구술생애사 등으로 구분 가능하다.



<그림 4> 편집방식에 따른 구술생애사

조선족 디아스포라 구술생애사는 질적 향상을 위해 ‘포괄적 구술생애사’를 지향할 필요가 있다. 이는 단순 생애담 수준을 넘어 개인 생애와 교직, 순환되는 구전과 구술 증언 외에 생활사의 다양한 기억과 경험까지 폭넓게 담아낸 것을 의미한다. 이는 소멸 중인 디아스포라 이주와 적응, 생활사의 집성(archives)이면서 동시에 생활사 분석을 위한 풍부한 텍스트이어야 한다. 구술자 개인의 경험과 인식에 대한 깊은 서술(deep descriptions)이면서 구술자 개인이 속한 공동체, 지역사회, 전체 조선족사회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보태지면 금상첨화다.

<표 2>는 코리안 디아스포라 구술생애사의 일반적인 수집 자료 항목을 나타낸다. 이는 구술생애사를 구전 및 구술증언 등과 더불어 구술사의 한 가지 단순한 분야로 간주한 것이다. 세대를 거쳐 입으로 전승되는 구전은 민요, 민담, 설화, 전설, 속담, 수수께끼 등을 포함한다. 구술증언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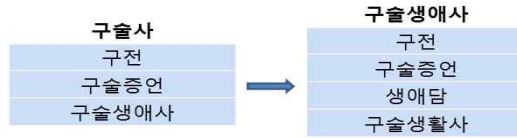
이주 무용담, 정착과 적응과정의 고난, 인종 및 민족 갈등, 기념될 만한 일, 특정 사건 등에 대한 내러티브를 의미한다. 한편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일반적 구술생애사’는 출생과 성장과정의 유년기, 청소년기, 결혼 후의 성인기, 장년기, 노년기 등의 생애주기에 따른 생활경험과 기억, 인식을 수록한 것으로서 단순 생애담 수준을 포함한다.

<표 2> 코리안 디아스포라 구술사 수집 자료 : 일반적 구술생애사

구술사 자료	세부 내용	비고
구전 (구비전승)	민요, 민담, 설화, 전설, 속담, 수수께끼 등	원형 구전, 변형·창조 구전
구술증언	이주 무용담, 정착과 적응과정의 고난, 인종 및 민족 갈등, 기념될 만한 일, 특정 사건	개인증언(생애사적 기억), 집단증언(사회사적 기억)
구술생애사	출생과 성장, 학업, 가족관계(청소년기), 직업 및 경제생활, 결혼과 가족형성(성인기), 친족관계, 장년기생활, 노년생활	생애사진, 생활물건, 소장 문서(족보·문집·영수증·자격증·계약서·공문서·거래장부), 개인 기록물(일기·서간·낙서·추억록·문학작품·가훈)

* 자료: 박경용(2012, 285. <표 4> 재구성)

하지만 지향하고자 하는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포괄적 구술생애사’를 위해서는 구전 및 구술증언, 생애담, 구술생활사 등을 모두 포괄하는 위치로 격상시킬 필요가 있다. ‘포괄적 구술생애사’의 틀을 도식화하면 <그림 5>와 같다. 그리고 수집해야 할 생애사 관련 항목들은 <표 3>과 같다. ‘포괄적 구술생애사’에서 생애담은 출생과 성장, 학업, 가족관계(청소년기), 이주와 적응과정, 결혼과 가족형성(성인기), 친족관계, 직업과 노동, 가족 위기 등 특별한 사건에 대한 경험과 인식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비고’란의 생애사진, 생활물건, 소장 문서(족보·문집·영수증·자격증·계약서·공문서·거래장부), 개인 기록물(일기·서간·낙서·추억록·문학작품·가훈) 등은 구술자의 생애와 관련되는 것으로서 생애 이야기를 견인, 증명하고 또 이야기 소재와 내용을 풍부하게 해주는 자료들이다.



<그림 5> 일반 구술생애사 → 포괄적 구술생애사

구술생활사는 구술자의 생애 경험과 기억 속의 공동체 조직생활, 친족 관계, 직업 및 경제생활, 의례생활, 의식주생활, 언어생활, 사회관계(이웃·친구·결사조직), 믿음과 종교, 금기(禁忌), 보건의료 및 위생, 놀이와 풍속, 축제, 전통지식, 문화유산과 민족문화 전승, 인종 및 민족관계, 특별한 사건에 대한 경험과 인식 등을 두루 포함한다. 가옥구조와 공간인식, 공동체 공간 구성과 환경인식, 성소(聖所)와 종교시설, 이웃·고을·사회·국가 간 상호관계, 종족인식과 국가정책 등에 대한 내용은 구술생애사의 질적 깊이를 더해준다.

<표 3> 코리안 디아스포라 구술생애사 수집 자료 : 포괄적 구술생애사

구술생애사 자료	세부 내용	비고
구전 (구비전승)	민요, 민담, 설화, 전설, 속담, 수수께끼 등	원형 구전, 변형·창조 구전
구술증언	이주 무용담, 정착과 적응과정의 고난, 인종 및 민족 갈등, 기념될 만한 일, 특정 사건	개인증언(생애사적 기억), 집단증언(사회사적 기억)
생애담	출생과 성장, 학업, 가족관계(청소년기), 이주과정, 이주지 적응과정, 결혼과 가족형성(성인기), 친족모임, 직업과 노동, 가족 위기 등 특별한 사건에 대한 경험과 인식 등	생애사진, 생활물건, 소장 문서(족보·문집·영수증·자격증·계약서·공문서·거래장부), 개인 기록물(일기·서간·낙서·추억록·문학작품·가훈)
구술생활사	공동체 조직생활, 사회관계(이웃·친구·결사조직), 친족관계, 직업 및 경제생활, 의례생활, 의식주생활, 언어생활, 믿음과 종교, 금기(禁忌), 보건의료 및 위생, 놀이와 풍속, 축제, 전통지식, 문화유산과 민족문화 전승, 인종 및 민족관계, 특별한 사건에 대한 경험과 인식 등	가옥구조와 공간인식, 공동체 공간 구성과 환경인식, 성소(聖所)와 종교시설, 이웃·고을·사회·국가, 종족인식과 국가정책

2. 디아스포라 유형별 구술생애사 연구방법

조선족 디아스포라 구술생애사 연구에서는 구술자가 동북3성 본거지에 거주하느냐 아니면 이곳을 떠나 중국 내외 지역에 거주하느냐에 따라 질문과 구술의 초점이 달라질 수 있다. 왜냐하면 이른바 조선족 제1의 디아스포라 정착지에 해당하는 동북3성과 이곳을 벗어난 재정착지는 조선족 이주민의 생활환경과 삶의 양식이 판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선족 디아스포라 구술생애사 연구전략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1) 제1의 디아스포라 - 동북3성 본거지 조선족 구술생애사

촌락 단위를 기준으로 할 때 동북3성 본거지 조선족의 생활환경 특성으로는 인구 구성상 60대 이상의 노년층이 다수를 점하고 있다. 연령층이 높을수록 일제 강점과 광복, 국·공 내전, 사회주의 국가 건설, 6·25전쟁, 문화대혁명 등 역사적 혼란기를 보내면서 이주와 정착과정은 더욱 힘들었다. 초기 이주자의 경우에는 현 거주지 정착 이전 여러 곳으로 불안정한 이주를 경험했을지라도, 안정적 정착 이후에는 한곳에 장기 거주하였다. 이는 중국의 봉폐식 호구제도 때문으로서 장기간 인구 이동을 강제적으로 제한하는 장치가 됐다. 본거지 조선족들은 황무지를 수전(水田) 옥답으로 전환시킴으로써 새로운 영농방식과 생활양식을 유도하였다. 또한 농경 위주의 생업활동을 유지하고 원적지 출신마을(예컨대, 경상도마을, 충청도마을)을 포함하는 순수 조선족마을을 이룸으로써 한민족 고유의 생활습속을 집단적으로 전승해 왔다. 이는 중국 당국의 포용적 소수민족 정책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민족문화를 보존, 전승하고 전통적인 생활양식을 지속시킬 수 있는 기초가 되었다(안상경·림영 2011, 200-203). 문화대혁명으로 민족문화가 크게 왜곡, 훼손되기는 했을지라도 상당 부분은 아직까지 지속과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동북3성 본거지 조선족 구술생애사는 이와 같은 생활양식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 우선 원적지로부터 옮겨와서 세대를 거쳐 집단적으로 전승되는 민요, 민담, 설화, 전설, 속담, 수수께끼 등의 구비전승을

살펴본다. 다음으로는 일제 강점과 광복을 거치는 과정에서 발생한 역사적 사건들로서 이들에게 영향을 미친 만주사변이나 대동아전쟁, 광복과 국·공 내전, 사회주의 국가 건설, 6·25전쟁에 대한 경험이나 기억들을 상기시킨다. 문화대혁명의 광기나 민족집단 간의 갈등, 수전 개척, 조선족 마을 형성과정, 기타 공동체 위기나 사건 등에 대한 경험과 인식, 기억들에 대해서도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

<표 4> 조선족 제1의 디아스포라 구술생애사 수집 자료

구술생애사 자료	세부 내용	비고
구전 (구비전승)	민요, 민담, 설화, 전설, 속담, 수수께끼 등	원형 구전, 변형·창조 구전
구술증언	이주 무용담, 정착과 적응과정의 고난, 인종 및 민족 갈등, 만주사변이나 대동아전쟁, 광복과 국공내전, 6.25전쟁, 사회주의 국가 건설, 문화대혁명의 경험, 수전 개척, 조선족 마을 형성, 기타 공동체 위기나 사건 등	개인증언(생애사적 기억), 집단증언(사회사적 기억)
생애담	출생과 성장, 학업, 가족관계(청소년기), 이주과정, 적응과정, 결혼 전 생활, 결혼과 가족형성(성인기), 가계 운용, 가족 위기, 특별한 사건에 대한 경험과 인식 등	생애사진, 생활물건, 소장 문서(족보·문집·영수증·자격증·계약서·공문서·거래장부), 개인 기록물(일기·서간·낙서·추억록·문학작품·가훈)
구술생활사	의식주생활, 언어생활, 관혼상제 의례, 놀이와 세시풍속, 친족관계, 직업과 노동생활, 사회관계, 믿음과 종교생활, 직업 및 노동생활	호구제도, 시장 활동, 한국 방문 경험, 해외 이주와 가족해체, 노년생활의 애로, 질병경험과 치료, 민족문화 전승

생애담에 대해서는 출생과 어린 시절 이야기를 비롯하여 학업과 성장기, 이주 및 적응과정, 결혼 전 생활과 방위가족, 결혼과 생식가족 형성, 가계 운용, 자녀관계, 가족 위기 등에 대해 살펴본다. 초기 이주 세대일수록 이주와 정착하기까지의 과정은 개인 생애에서 잊을 수 없는 중요한 사건이자 경험이다. 선대 및 본인의 이주과정에 대해서는 이주 원인과 절차, 동행인, 궤적, 고난과 애환 등에 대해 살펴본다. 이주지 정착과정에

대해서는 정착지 환경과 이주 초기 의식주생활, 동행집단, 농토 개척, 공동조직, 노동양상, 협동과 갈등양상, 애로사항과 위기, 민족관계, 이주 당국의 정책 등에 대해 살펴본다. 일부 조선족들은 도보 이주의 험난함을 경험했으며, 황무지 농토 개척과 땅집 생활, 나물 등 구황식물로 연명하던 기억을 지니고 있다(강원도·강원발전연구원 2006; 2007; 2009; 경상북도·인문사회연구소 2010).

생활문화는 일상의 생활과정에서 되풀이되는 문화현상으로서 생애과정에서 누구나 경험하게 되며 시대에 따라 변화와 지속을 거듭한다. 이는 다문화, 초국적 관계의 경계에 서 있는 이주민으로서는 민족정체성을 유지시켜주는 매개가 된다. 조선족 구술생애사 연구에서는 의식주생활, 언어생활, 관혼상제 의례, 놀이와 세시풍속, 친족관계, 직업과 노동생활, 사회관계, 믿음과 종교생활, 직업과 경제생활 등이 포함된다. 이 외에도 학교생활과 자녀교육, 결혼에 대한 인식, 기제를 비롯한 조상숭배, 호구제도, 물자 조달과 시장 활동, 한국 방문 경험, 해외 이주와 가족해체, 노년생활의 애로, 질병경험과 치료, 공동체생활, 민족문화 전승 등에 대한 경험과 인식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상의 특성을 반영하는 조선족 제1의 디아스포라 구술생애사 연구를 위한 수집 자료 항목은 <표 4>와 같다.

(2) 제2의 디아스포라 - 재정착지 조선족 구술생애사

조선족이 중국 내 대도시나 타국으로 이주하는 연령층은 주로 젊은층이다. 이들은 학업, 혼인, 돈벌이 등의 목적으로 이주한다. 귀환을 염두에 둔 단기 이주자가 대부분이지만, 상당수는 재이주지 국가의 영주권을 획득하여 눌러앉기도 한다. 귀국을 하는 경우에도 본거지로 되돌아가기보다는 새로운 곳을 찾아 대도시로 정착하는 경우가 많다.

제2의 디아스포라 조선족은 일국 내 여러 지역 혹은 여러 국가를 넘나드는 유목성이 강하다. 조선족은 현재 세계 전 대륙에 걸친 80여 개 국가에 60여만 명이 이주함으로써 중국 내 소수민족 중 가장 글로벌한 특징을 나타낸다. 국외 이주 조선족들은 모국인 한국 이주자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며, 중국 내 대도시 이주자의 경우에도 한국인이나 한국 기업과의

강한 유대를 형성한다. 이들은 초기 이주 세대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해야 할 과제를 안게 된다. 이들에게는 일자리를 구해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주국의 언어 습득을 비롯하여 문화적, 사회적 적응을 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는 누구나 어려움을 겪기 마련이며, 적응의 수월성을 도모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방편을 마련한다. 여러 연구들에 의하면, 중국 조선족들은 새로운 이주지에서 적응하기 위해 기존의 고향 연고를 비롯한 모국과의 관계 등 종족자원에 의존한다(예동근 2010; 박경용 2013c). 조선족 전체 차원에서는 집거구(集居區)를 구축하거나 종족조직, 종교단체, 향우회, 동창회, 취미클럽 등의 종족커뮤니티를 형성함으로써 상호 유대와 적응력을 강화시켜 나간다.

‘제2의 디아스포라’로 표현되는 현대사회의 재이주지 조선족 구술생애사 연구는 이와 같은 특성들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동북지역 조선족 구술생애사 연구에 비해 구비전승 내용은 중요성이 덜할 것이며, 구술증언과 생애담, 구술생활사 내용도 성격이 다를 수밖에 없음을 감안해야 한다.

구술증언에 대해서는 이주 및 적응과정의 무용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코리아 드림’의 꿈을 타고 한국으로 이주하는 경우, 일부 조선족들은 ‘도둑배’로 밀입국하다가 온갖 고생을 했다(박경용·여필순·이채문·이현철 2013, 89-91). 어떤 경우에는 밀입국자로 숨어 지내기도 하거나 본국으로 강제 추방됐던 경험도 있다. 노동현장에서 안전사고를 경험하거나 질병을 앓아 사경을 헤맨 경우도 있다. 이주민 차별정책과 인권유린을 경험하고 이주민 집단시위에 참여하거나 언어 및 문화 차이로 인한 해프닝도 경험했다. 이 외에도 이주지 정착과 적응과정의 고난, 인종 및 민족 갈등, 기념될 만한 일이나 구술자 개인과 조선족 이주사회에서 일어난 특정 사건 등에 대해서도 살펴본다(박우·김용선 외 편저 2012).

생애담은 당사자의 이주 동기와 과정을 이해하도록 도와주는데, 출생 및 성장과정과 학업과정, 가족관계(청소년기), 결혼 이전 생활, 이주 및 적응과정, 결혼과 가족형성(성인기), 가게 운용, 사회관계 형성 등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특히 이주과정에 대해서는 이주 동기와 절차, 동행인, 궤

적, 고난과 애환 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주지의 정착, 적응과정에 대해서는 정착지 환경과 초기 의식주생활, 동행집단, 직장 구하기, 애로사항과 위기 극복, 언어 및 문화 차이에 대한 인식과 태도, 민족관계, 이주 당국의 정책 등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구술생활사에 대해서는 재이주지 의식주생활, 모국 친족관계, 본거지 종족자원(동향·동창·동족) 활용, 종족 커뮤니티 참여와 활동, 종족문화 전승, 놀이와 여가생활, 직업 및 노동생활, 재이주지 사회관계 등에 대해 살펴본다. 이 외에 이주국의 이주정책에 대한 인식, 자녀교육과 미래 계획, 사회문화적 적응노력, 종족의식과 정체성 등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이상의 특성을 반영하는 조선족 제2의 디아스포라 구술생애사 연구를 위한 수집 자료 항목은 <표 5>와 같다.

<표 5> 조선족 제2의 디아스포라 구술생애사 수집 자료

구술생애사 자료	세부 내용	비고
구전 (구비전승)	민요, 민담, 설화, 전설, 속담, 수수께끼 등	원형 구전, 변형·창조 구전
구술증언	이주 무용담, 정착과 적응과정의 고난, 인종 및 민족 갈등, 기념될 만한 일, 특정 사건	개인증언(생애사적 기억), 집단증언(사회사적 기억)
생애담	출생 및 성장, 학업, 가족관계(청소년기), 결혼 이전 생활, 이주 및 적응과정, 결혼과 가족형성(성인기), 가계 운용, 사회관계 형성	생애사진, 소장문서(이주 및 정착 관련 서류·자격증·공증서류), 개인 기록물(일기·서간·낙서·추억록·문학작품)
구술생활사	의식주생활, 모국 친족관계, 본거지 종족자원(동향·동창·동족) 활용, 종족 커뮤니티 참여와 활동, 놀이와 여가생활, 직업 및 노동생활, 믿음과 종교생활, 재이주지 문화적응, 재이주지 사회관계	이주지 이주정책에 대한 인식, 자녀교육과 미래 계획, 사회문화적 적응노력, 종족의식과 정체성

V. 맺음말

조선족 디아스포라 구술생애사는 조선족의 이주와 적응, 생활사를 기록하고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연구방법론이자 역사문화콘텐츠이며 분석을 위한 텍스트다. 중국 조선족은 이미 초기 이주세대가 대부분 자연 사멸함으로써 이주와 적응, 생활사의 많은 기억이 소멸되어 안타까운 실정이다. 한국어 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16권의 생애사와 5편의 논문이 산출된 정도여서 우선 양적으로 대단히 빈약하다. 이는 구술생애사 연구가 시간과 예산, 노력 등이 많이 투입되고 또 그만큼 힘든 작업이어서 시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질적 측면에서도 개인 생애사의 상당 부분이 빠져 있거나 이주와 적응, 생활사를 종합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폭넓고 깊이 있는 구술이 채록되지 못해 아쉽다.

하지만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조선족 디아스포라 구술생애사 연구의 단초를 열어주었다는 점에서는 그 가치와 의의가 적지 않다. 조선족 디아스포라 구술생애사 대부분이 2010년을 전후하여 본격 집성되기 시작함으로써 이제 걸음마 단계지만, 그 필요성과 시급성이 학계에 공유되고 있어 향후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상에서 소개된 일련의 구술생애사 자료들은 앞으로의 연구에 커다란 길잡이가 될 것이다.

필자는 조선족 디아스포라 구술생애사 연구의 한 가지 대안으로서 이른바 ‘포괄적 구술생애사’를 제시하였다. 이는 구술생애사를 구전 및 구술 증언 등과 더불어 구술사의 한 가지 단순한 분야로 간주하는 기존의 입장을 넘어서는 것을 의미한다. 기존의 구술생애사 대부분은 이주와 적응을 비롯한 단순 생애담에 특정의 전문 분야 경험과 기억을 더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하지만 ‘포괄적 구술생애사’는 조선족 디아스포라의 구전 및 구술증언, 생애담, 구술생활사 등을 모두 포괄함으로써 구술사 영역 내의 위상을 격상시키는 것이다.

조선족 디아스포라 구술생애사는 디아스포라 유형에 따라 연구 전략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즉 동북3성의 본거지 조선족과 이곳을 떠나 중국 내외로 재이주한 조선족 디아스포라 구술생애사의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 이는 이주 시기와 동기, 과정뿐만 아니라 이주 연령층과 이주지의 생

활조건의 상이하어 이주와 적응, 생활사의 양상이 같지 않기 때문이다.

본거지 조선족은 인구 구성상 60대 이상의 노년층이 다수를 점하고 있으며 일제 강점과 광복, 국·공 내전, 사회주의 국가 건설, 6·25전쟁, 문화대혁명 등을 전후한 시기의 특수한 역사적 경험을 간직한다. 또한 봉폐식 호구제도로 안정적인 정착 이후에는 한곳에 장기 거주함으로써 한민족 고유의 생활습속을 집단적으로 오래도록 전승해 왔다. 민족 고유의 수전농법에 기초한 영농방식과 집단적 생활양식 및 중국 당국의 포용적 소수민족정책 등도 민족문화를 보존, 전승하고 전통적인 생활양식을 지속시킬 수 있는 기초가 되었다.

이에 비해 개혁개방정책 이후 중국 내 대도시나 타국으로의 조선족 이주 러시는 초기 이주와는 자못 상이한 양상을 나타낸다. 이주자는 주로 젊은층이며, 학업과 혼인, 돈벌이 등의 목적으로 이주한다. 귀환을 염두에 둔 단기 이주자가 대부분이지만, 상당수는 재이주지 국가의 영주권을 획득하여 눌러앉기도 한다. 귀국을 하는 경우에도 본거지로 되돌아가기보다는 새로운 곳을 찾아 대도시로 정착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일국 내 여러 지역 혹은 여러 국가를 넘나드는 유목성이 현저하다. 이들은 중국 내 소수민족 중 가장 글로벌한 특징을 나타내는데, 새로운 환경에서 정착, 적응하는 과정에서 어려움도 겪는다. 이들은 새로운 이주지 적응을 위해 기존의 고향 연고를 비롯한 모국과의 관계 등 종족자원에 의존한다. 조선족 전체 차원에서는 집거구를 구축하거나 종족조직, 종교단체, 향우회, 동창회, 취미클럽 등의 종족커뮤니티를 형성함으로써 상호 유대와 적응력을 강화시켜 나간다.

조선족 디아스포라 구술생애사는 이와 같은 상이한 디아스포라 유형에 따라 연구 전략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본거지 조선족 구술생애사는 구전과 구술증언, 생애담을 비롯하여 이주와 적응, 생활사 중심으로 접근한다. 반면 재이주지 조선족 구술생애사는 생애주기에 따른 생애담과 이주과정 외에 재이주사회에 정착, 적응하는 과정의 생활양상 위주로 접근한다.

중국 조선족사회는 제2의 디아스포라로 인해 급격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 생활기반의 보존과 민족문화 전승의 어려움 등에 직면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조선족 사회 내부적으로 총체적인 자구책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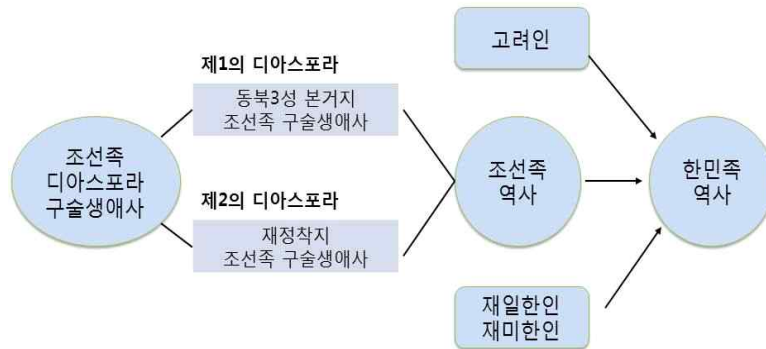
이 있어야겠지만, 민족문화 전승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언어와 역사 교육 및 관광, 민족예술 등에서 조선족-모국 간 문화 교류 활성화사업이 정책적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이는 미래 통일 한국과 조선족 사회의 유대와 협력 차원에서 긴요한 사안이라 할 수 있다.

둘째, 한국의 지원으로 본거지 내에 가칭 ‘조선족 디아스포라 역사관’ 혹은 ‘조선족생활사박물관’을 설립하여 조선족 이주와 적응, 생활사의 면모를 빠짐없이 전시, 보존한다. 이는 조선족의 소중한 역사적 사실로서 한민족의 누락된 역사를 복원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셋째, 조선족 전체사회를 대상으로 가칭 ‘조선족 디아스포라 구술생애사 집성’ 프로젝트를 기획, 추진한다. 구술생애사 외에 자술생애사나 전기, 평전 등 다양한 형태의 생애사 기록을 통해 조선족의 디아스포라적 삶을 생생하게 남겨둘 필요가 있다. 구술생애사는 한 개인의 삶의 노정이면서 동시에 조선족 전체의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우선 동북3성 각처의 ‘조선족 100인 디아스포라 구술생애사 기록’을 제안한다. 이는 누락된 한민족의 역사를 보완하고 교육 및 스토리텔링 외에 방송·영화·드라마·문학·박물관·문화관광 등 문화산업 콘텐츠로도 활용 가능하다. 또한 재외한인 네트워크 구축과 모국과의 교류를 위한 매개가 될 수도 있다. 코리안 디아스포라 이주와 적응, 생활사에 대한 내러티브 연구를 수행 중인 관련 연구단체나 기관들이 컨소시엄 형태로 국가의 지원을 받아 추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연구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한국과 중국 내 관련 연구기관이나 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동북3성 중심의 조선족 디아스포라 구술생애사 연구가 이루어진 후에는 재이주지의 조선족에 대한 연구도 동일한 방법으로 수행함직하다. 중앙아시아, 러시아 연해주, 사할린을 비롯하여 미국, 일본, 유럽 등 각국의 코리안 디아스포라 구술생애사 집성도 시급하다. 이는 <그림 6>에서처럼, 조선족과 고려인을 비롯한 재외 한인의 역사를 보완하게 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한민족의 역사를 충실히 하는 데 일조할 것이다.



<그림 6> 조선족 디아스포라 구술생애사 연구방법

본고에서는 중국 조선족에 대한 생애사 텍스트를 리뷰하면서 한국과 중국에서 한국어로 간행된 문헌 위주로만 검토했다. 주위에서 눈에 쉽게 띄는 자료들에 한정되므로 특히 중국에서 간행된 조선족 디아스포라 생애사에 대한 좀 더 세밀한 문헌 검색이 필요하다. ‘포괄적 구술생애사’와 관련하여 2가지 유형의 조선족 디아스포라 구술생애사 연구를 위한 자료 수집 항목들에 대해 정밀한 보완도 필요하다. ‘포괄적 구술생애사’가 중국 조선족을 넘어 전체 재외 한인들의 이주와 적응, 생활의 역사를 기록하기 위한 방법론으로서 얼마나 유효한지에 대해서도 숙고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 강원도·강원발전연구원 (2006). 『재중강원인의 생활문화 조사연구-길림성 연변조선족자치주』.
- 강원도·강원발전연구원 (2007). 『재중강원인의 생활문화 조사연구-중국 흑룡강성』.
- 강원도·강원발전연구원 (2009). 『재중강원인의 생활문화 조사연구-중국 요녕성』.
- 경상북도·인문사회연구소 (2010). 『중국, 경상도 마을을 가다』.
- 경상북도·인문사회연구소 (2011). 『사할린의 여름 하늘을 날다』.
- 경상북도·(사)인문사회연구소 (2012a). 『검은눈의 이방인, 아몬드 눈을 가진 천사』.
- 경상북도·(사)인문사회연구소 (2012b). 『유랑, 이후』.
- 경상북도·(사)인문사회연구소 (2013). 『뜨락또르와 까츄사들-우즈베키스탄 고려인』.
- 고가영(2008). “우랄지역 원로 고려인들의 생애사 연구.” 『역사문화연구』. 제30집, pp. 51-86.
- 국립민속박물관 (1996). 『중국 길림성 한인동포의 생활문화』.
- 국립민속박물관 (1997). 『중국 요녕성 한인동포의 생활문화』.
- 국립민속박물관 (1998). 『중국 흑룡강성 한인동포의 생활문화』.
- 김석원 (2007). “우크라이나 고려인협회의 산 증인, 심 콘스탄친.” 『역사문화연구』. 제29집, pp. 427-458.
- 김용삼 (2010). 『나의 한평생』. 북경: 민족출판사.
- 리정자 (2011). 『나의 사랑 나의 추억』. 북경: 민족출판사.
- 문정환 (2012). “구술생애사로 본 해방전후 어느 조선족의 이주와 정착과정.” 『다문화와 디아스포라 연구』. 창간호, pp. 111-132.
- 박경용 (2012). “코리안 디아스포라 생활사 연구의 구술사 활용방법-인류학적 관점을 중심으로.” 『민족문화논총』. 제50집. 제1권, pp. 255-295.
- 박경용 (2013a). “사할린 한인 김옥자의 삶과 디아스포라 생활사-‘기억의 환기’를 통한 구술생애사 방법을 중심으로.” 『디아스포라연구』. 제7집. 제1권, pp. 165-198.
- 박경용 (2013b). “중국 조선족 한 여성 구술자의 삶과 가족사를 통해 본 디아스포라 애환-생애 내러티브(Life Narrative)를 중심으로.” 『다문화와 평화』. 제7집. 제2권, pp. 68-106.
- 박경용 (2013c). “조선족 디아스포라 경험과 신홍이주지 정착 전략-칭다오(靑島) 거주 한 여성 이주자의 생애 내러티브(Life Narrative)를 중심으로.” 『다문화와 디아스포라 연구』. 제3집, pp. 25-69.
- 박경용·여필순·이채문·이현철 (2013). 『중국 칭다오(靑道) 조선족 박정옥의 구술

- 생애사』. 대구: 책과 세계.
- 박경하 (2010). 『사할린 한인 공노원 구술생애사』. 서울: 경진.
- 박남권 (2013). 『두만강변에 서린 애환: 한 박씨 일가의 백년 이민사』. 북경: 민족출판사.
- 박우·김용선 외 편 (2012). 『우리가 만난 한국: 재한 조선족의 구술생애사』. 성남: 북코리아.
- 박지배 (2008). “원로 고려인 이블라지미르의 생애와 톨스크의 한인사회”. 『역사문화연구』. 제29집, pp. 325-364.
- 박충록 (2008). 『나의 인생길』. 북경: 민족출판사.
- 배은경 (2008). “시베리아 과학자 김 파벨 가족의 구술 생애사 연구”. 『역사문화연구』. 제30집, pp. 87-117.
- 심혜숙 (2013). 『나의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사연들』. 대구: 책과 세계.
- 안금영 (2003). “초기 멕시코 한인 이주민의 쿠바 정착과정.” 『서어서문연구』. 제28호, pp. 671-691.
- 안금영 (2004). “1940년대 이후 쿠바의 사회변화와 한인 후예의 삶.” 『서어서문연구』. 제31호, pp. 347-362.
- 안상경·림영 (2011). “중국 조선족 세시풍속의 전승과 변화 연구: 연변조선족자치주 ‘정암촌’의 세시풍속을 중심으로.” 『재외한인연구』. 제23집, pp. 193-222.
- 여필순 (2013). 『물리학자 이원백 교수를 통해서 본 조선족 지식층의 삶』. 대구: 책과 세계.
- 예동근 (2010). “글로벌시대 중국의 체제전환과 도시종족공동체 재형성-북경 왕징 코리아타운의 조선족 공동체 사례 연구.” 『민족연구』. 제43집, pp. 159-185.
- 예동근 외 (2011). 『조선족 3세들의 서울 이야기』. 서울: 백산서당.
- 유병호 (2002). “중국 조선족 제1세대 역사학자 박창욱.” 『정신문화연구』. 제25권, 제2호, pp. 241-267.
- 유철인 (2003). “구술자료의 채록과 해석-구술자와 채록자의 상호작용”. 『한국예술통합학교논문집』. 제6집, pp. 97-115.
- 윤택림 (2004). 『문화와 역사 연구를 위한 질적 연구방법론』. 서울: 아르케.
- 윤택림·함한희 (2006). 『새로운 역사 쓰기를 위한 구술사 연구방법론』. 서울: 아르케.
- 이병조 (2011). “생존자의 회상을 통해서 본 스탈린 탄압의 비극: 최초의 한인 해군장교, 최 파벨 페트로비치(최선학) 가족을 중심으로.” 『재외한인연구』.

제24집, pp. 163-174.

- 이복규 (2012). 『중양아시아 고려의 생애담 연구』. 서울 : 지식과 교양.
- 이종득 (2003). “멕시코 한인 이민자들의 성격과 정체성 변화-농장생활 (1904-1905)을 중심으로.” 『서어서문연구』. 제28호, pp. 693-715.
- 이채문 (2013). 『남부러시아 로스토프와 볼고그라드 고려인 생활사』. 대구: 책과 세계.
- 이채문·조현미·여필순·이현철·문정환 (2013a). 『연변 조선족 구술생활사』. 대구: 책과 세계.
- 이채문·조현미·여필순·이현철·문정환 (2013b). 『흑룡강성 오상시 조선족 노인들의 생활사』. 대구: 책과 세계.
- 이춘복 (2010). 『파란과 곡절 그리고 희망: 중국 조선족 출신 결혼이민자의 일대기』. 서울: 경진.
- 이현철·박경용·여필순·이채문 (2003). 『칭다오 조선족 9명 이야기-신홍정착지 칭다오 조선족, 그들의 삶 그리고 내러티브(Narrative)』. 대구: 책과 세계.
-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2005). 『당꼬라고요?』.
-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2006). 『검은 대륙으로 끌려간 조선인들: 사할린 강제동원의 기록』.
-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2007). 『지독한 이별-사할린 이중징용 진상조사 구술기록』.
- 임영상 (2003). “코리안 아메리칸과 구술사: 백한옥-장진옥 부부의 인디애나 생활.” 『역사문화연구』. 제25집, pp. 1-22.
- 임영상 (2006). “시베리아 고려인 과학자: 크리스노야르스크의 물리학자 김 표토르.” 『국제지역연구』. 제9권. 제1호, pp. 299-330.
- 임영상 (2012). 『구술생애사와 문화콘텐츠를 통해 본 고려인』. 서울: 신서원.
- 재일제주인의 생활사를 기록하는 모임 (2012). 『안주의 땅을 찾아서-재일제주인의 생활사1』. 서울: 선인.
- 장전걸·손정려 (2012). 『머나먼 령정』. 북경: 민족출판사.
- 조현미 (2013). “두 한인 디아스포라 여성의 삶과 정체성.” 『일본어문학』. 제60집, pp. 459-484.
- 조현미·여필순 (2012). 『조선족 엘리트 여성 심혜숙의 생애』. 대구: 책과 세계.
- 한화식 (2011). 『못 말리는 개산툰』. 북경 : 민족출판사.
- 황영삼(2008b). “고려인 학자 박 보리스 드미트리예비치 교수의 구술생애사-중양 아시아 및 시베리아 생활시기를 중심으로.” 『역사문화연구』. 제30집, pp. 3-50.

Kim, Won (2009). "Memories of Migrant Labor: Stories of Korean Nurses Dispatched to Western Germany." *The Review of Korean Studies*. Vol. 12, No. 4. pp. 111-151.

| 논문투고일 : 2014년 02월 25일 |

| 논문심사일 : 2014년 03월 04일 |

| 게재확정일 : 2014년 03월 14일 |

ABSTRACT

Journal of Asia-Pacific Studies Vol. 21, No. 1 (2014)

Review and Method of Study about the Oral Life History of Korean-Chinese(Chosun-jok) Diaspora

Gyeong-Yong Bak

(SSK Multicultural and Diaspora Research Group,
Kyungpook National Univ.)

The oral life history of Korean-Chinese(Chosun-jok) diaspora is an useful method for recording and understanding of the process of migration and adaptation, the oral history of Korean-Chinese's everyday lives. And it is history, culture contents and the text for analysis. Focused on Korean articles and books, there have been very poor only 16 books of life histories and 5 articles on this part until now. But it is much significant and worthwhile that these studies lead to more research about the oral life history of Korean-Chinese diaspora in the future.

I would propose 'the more inclusive oral life history' as an alternative plan for up-grade oral life history of Korean-Chinese diaspora. For this, we must inclusively contain the concerning oral tradition, oral testimony, life narrative and the oral history of everyday lives in the oral life history of Korean-Chinese. And then we must make up-grade the oral life history of Korean-Chinese diaspora in the field of oral history.

It is necessary for us to adopt different strategies according to two unlike diaspora types so as to study the oral life history of Korean-Chinese diaspora. The case of the first diaspora about

Korean-Chinese in original regions should be all focused on oral tradition, oral testimony, life narrative and oral culture history of everyday lives. But another case of the second diaspora about Korean-Chinese in re-migration regions should be more focused on the process of adaptation and the history of everyday lives in new migration regions than oral tradition and oral testimony. We can conserve the history of Korean-Chinese and make up for Korean history through recording of the oral life history about Korean-Chinese diaspora. We can make good use of it to education and culture tourism storytelling and for development of culture industry, broadcasting and movie, drama, literature, museum etc.

- Key words: Korean-Chinese(Chosun-jok), The First Diaspora, The Second Diaspora, Oral Life History, Inclusive Oral Life History